

# 인간의 성품을 벗어버리면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 하나님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면 천국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궁화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꽃이므로 하늘나라의 꽃인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었던고로 영원무궁토록 살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오래오래 피는 꽃을 사랑해 왔던 것입니다.

무궁화가 하나님의 꽃이며, 영생의 꽃이며, 하늘나라의 꽃이라는 것은 5숫자는 구원의 숫자인고로 꽃잎이 5개, 꽃술도 5개, 꽃씨도 5개인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 무궁화 꽃은 보라색인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 놓으면 보라색이 됩니다. 태극기에도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그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됩니다. 이것은 음양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음양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음양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음양은 바로 마귀의 성품인고로 마귀의 성품을 없애는 색깔인 보라색이 무궁화 꽃의 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궁화는 의인의 꽃이며, 영생의 꽃이며, 하늘나라의 꽃인 것입니다.

### 영생의 비결을 가르쳐 주는 승리제단

승리제단에서 무궁화 심기 운동을 한 것은 승리제단은 영생의 비결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곳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영생의 꽃을 심는 운동을 한 것입니다.

승리제단에서는 영생 얻는 비결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성경이나 불경의 구원론을 정확하게 논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 안에서 행하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 "부활함을 입어야 구원을 얻는다" "생명과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모두 똑같은 뜻이라는 것을 이 사

람이 세밀하게 논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마귀 욕에 가둬 놓고 있는고로 마귀를 이기고 본 자리가 되는 나라는 의식의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앉기만 했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가 되면서, 육천 년 전에 마귀의 포로가 된 하나님이 이제 그대로 해방이 됐다가 되고, 자유함을 얻었다가 되고, 영적 무덤 속에 있던 하나님이 다시 살았다가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은 바로 부활함을 입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며,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으로 다시 살았다가 되면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 믿음 = 생명과일 = 부활 = 성령으로 거듭남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믿음입니다. 이기신 하나님은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랑관계를 이기는 하나님의 영을 선물로 주시므로 이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일은 바로 성경 말이며, 성경 말씀은 영적 말씀인고로 영적 과일이며, 영적 과일이니까 영이며, 영은 영인데 죽이는 영이 아니라 영생하는 영이니까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랑관계를 이기는 영, 즉 영생하는 영이 생명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 생명과일이며, 부활함을 입은 영이 생명과일이며, 믿음이 곧 생명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자체가 곧 부활함을 입은 영이며, 성령으로 거듭난 영일 뿐만 아니라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 구절처럼



인류의 구세주 조희성님

하늘나라가 되는고로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면서 천당이 되면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되면 마귀 욕에 갇혔던 하나님이 부활함을 입은 것이며,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이 나라는 의식이 된 것이므로 내 마음이 곧 하늘나라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가 곧 믿음이며, 하늘나라가 곧 생명과일이며, 하늘나라가 곧 성령으로 거듭난 영이며, 부활함을 입은 하나님의 영이 곧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 하나님의 마음 = 천국 = 생명과일 = 부활

그러므로 하나님이나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은 성경과 불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고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하나님이 되기만 하면

하늘나라가 되는고로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면서 천당이 되면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곧 하늘나라"라는 말씀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천국이 있나니라"라는 말씀은 사람을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곧 하늘나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천국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생명과일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곧 부활함을 입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를 전 세계 만방에 알려 주면 예수나 불교나 기독교나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이나 영생을 얻지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안

돼 가지고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 다음에야 비로소 영생을 얻고 죽음과 이별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죽음과 이별을 할 수 없으며, 그 죽음과 이별을 못 하면 무덤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음양을 벗고 인성(人性)을 버려야

그러므로 죽음의 탈을 벗겨 버리는 비결은 인간의 감정을 버려야 되고, 음양의 성품을 벗어 버리는데 음양의 성품을 벗어 버리면, 남자는 내가 남자라는 걸 의식 속에서 잊어버려야 되고, 여자는 나는 여자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여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 될 후보자이므로 하나님 나는 여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영원무궁토록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이 천당 안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이루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남자 여자 그대 바로 마귀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형상에서 완전히 벗어 내려면 남자의 성품을 완전히 벗어 버려야 하고, 여자는 여자의 성품을 완전히 벗어나야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으며,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으며, 피가 썩으려야 썩을 수 없는 영생의 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죽음의 위험 속에서 항상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살지만 인성을 완전히 벗어 버리면 죽음의 공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사는 영생의 확신 속에서 살면 하나님의 피로 변하게

되면서 사람이 죽으려야 죽을 수 없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러분들이 영원무궁토록 사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는 비결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된다"는 이 엄청난 사실은 너무나도 과학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 시간이 논하지만 "욕심 부리면 피가 썩는다." 그러므로 근심, 걱정만 하면 얼굴에 기미가 시커멓게 끼고 근심, 걱정만 하면 피가 썩기 때문에 썩은 피가 모세혈관에 축적되는 현상이 기미가 끼는 현상이요. 근심, 걱정이란 것은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것을 되게끔 욕심 부리는 마음이 근심, 걱정이란 것입니다.

또한 술을 마시면 화를 한 백 번 정도 내 것만큼 피가 썩게 되므로 승리제단에서는 술, 담배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걸리는 사람들은 피가 많이 썩었기 때문에 썩은 피가 암 세포를 조장해 주는고로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암에 걸린 사람을 자세히 보면 다른 사람 보는데 미워하는 게 아니라 방 안에서 혼자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대개 암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함양제가 들어 있는 그런 음식물을 여러분들께 가르쳐 준 일이 있는데, 마늘, 양파, 파와 같은 것은 항암제가 되는 물질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까마타 먹으면 더 좋습니다. 이 사람이 죽지 않는 비결을 논하는 사람인고로 그 병을 낫게 하는, 병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예방법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1991년 8월 24일 말씀 중에서

〈피의 원리〉는 바로 인간 자신을 밝히는 원리요, 인간의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참 생명주의 학문이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인간 속에 있으며, 그 해결점도 인간 속에 있음을 〈피의 원리〉는 과학적 학문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힌다. 왜냐하면 인간은 문제의 열쇠를 자신 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인간들은 인간 내면에서 잃어버린 열쇠를 밖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피의 원리〉는 바로 인간 속에서 문제점을 찾고, 인간 속에서 그 문제의 열쇠를 찾으려는 참 인간주의인 것이다.

### 지금의 세계는 경제와 역사, 문화대국성 등 보이지 않는 힘의 전쟁 치열하다

지금 세계는 이념과 사상으로 낯선 대립을 하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와 역사, 문화대국성 등의 보이지 않는 힘의 전쟁이 치열하다. 자국의 이익과 역사의 우월성, 그리고 선진문화 우위를 잡기 위하여 이념과 영토 확장 전쟁과 같은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양상은 세계를 공체 운동이라는 큰 세계국가라는 틀로 보지 않고, 개별국가로서 민족, 문화, 종교, 정치로 나누어 보려는 국가이기주의와 자국중심적인 좁은 테두리 안에 두고자 하는 발상인 것이다. 이로 인하여 세계가 하나되지 못하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 보이지 않는 전쟁을 극렬하게 치르고 있다. 유럽연합의 붕괴위기, 남미의 포퓰리즘 복지정책, 미국의 신보호무역주의, 중국의 세계 꿈(夢), 일본의 국방력 강화와 대륙진출의 야심

그렇다고 하여, 〈피의 원리〉는 기존의 인간주의와 같이 인간을 단순히 우주의 중심에 놓는 것으로써, 혹은 자연의 인위적인 개척자로서의 인간중심주의를 뜻하지는 않는다. 〈피의 원리〉는 인간이 먼저 변화함으로써 자연과 환경의 변화를 자연적으로 유도한다. 이런 의미에서 〈피의 원리〉는 인간중심주의인 것이다. 인간이 먼저 순수양심과 선, 그리고 온전한 인격체(신神)로 거듭난다면, 자연환경과 사회 환경도 역시 자연적으로

### [언제]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 피의 원리, 인간과 세계를 향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등 세계는 자국의 이익과 국방력강화, 민족주의, 민족적 우월성과 활로(活路)에만 집착하고 있다.

예로부터 서양은 과학기술이 발달된 물질문명이 중심이 되었고, 동양은 종교나 사상이 발달된 정신문명이 중심에 위치한다. 서양은 정확한 것을 근간으로 하는 과학적 사고를 좋아하고, 동양은 올바른 마음과 정신을 좋아한다. 지금은 바야흐로 서쪽의 기운이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세계 유수의 석학들은 말하고 있다.

한편, 동아시아의 강대국 중국은 중국대로 아편전쟁이 일어나기 전 청나라의 GDP가 전세계의 33%를 차지하던 때 정도로 중국이 다시 부흥하기를 바라는 중국 꿈(夢)에 빠져있다. 세계 초강대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진 미국은 지금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호주의 통상체도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며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고, 일본은 자국우선주의 정책으로 한국과 중국과의 대결구도를 펼쳐고 있다.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자본주의의 탐욕과 자국중심주의에 함몰되어 인류가 한 가족이자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인간 본연의 도덕성이라든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존중사상은 온데간데없다. 전세계가 자국의 이익과 경제대국민을 피하는 신개념의 현대판 전쟁이 갈수록 치열하다. 오직 황금만능주의와 물질만능주의를 최우선 정책과 방도로 자국의 이익만 앞세우는 형국은 자원고갈, 환경 파괴, 인구증가, 비인간화, 과도한 불평등의 문제에 손 쓸 길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세계의 이런 경제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상황 하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뿌리 깊은 정신문명과 생명제일상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우리의 국조 단군의 건국이념 속에는 홍익인간, 재세이화, 인내천사상으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누리며 만물과 조화와 상생의 삶으로 모든 살아 있는 생명체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이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 10월 동양일보 창사25주년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다"라는 주제의 포럼이 있었다

최근 2016년 10월 동양일보 창사25주년 한·중·일 회의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다"라는 주제로 포럼

이 있었다. 주제는 '생명'이었고, 발표자들은 '생명'이 자본 속에 종속되고 있는 현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신자유주의란 자본의 다과에 의한 생명 서열화의 다른 이름이다. 활명(活命)을 찾다가 도리어 살명(殺命)에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사드의 동아시아 배치를 상징되는 "동아시아 분단의 썩기"를 뽑아버릴 수 있는 근원적 생명력의 연대가 필요 불가결하다. '동아시아 활명연대를 제안(김태창 주간)' 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는 동아시아의 활명연대를 주축으로 공동 창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이다. 최종적으로는 서구근대문명에 의해 파괴돼 가는 우주적 생명력을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인가? 또한 서구근대문명 이후 인간의 식물 생명적 측면은 점점 약화되고, 동물 생명적 측면만 점점 증대돼 가는 불균형을 어떻게 바로 잡아갈 것인가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이런 생명의 문제, 문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동아시아의 '활명(活命)연대'의 공동 구축을 통해서 모색하자는 제안을 했다.

### 2016년 10월 동양일보 창사25주년 "동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함께 열다"라는 주제의 포럼이 있었다

그리기 위해선 어떻게 국민국가의 테두리를 강화하는 내셔널리즘을 극복하고 동아시아 미래공창의 주체로서의 시

민의식을 함양해 갈 것인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하였다. 한·중·일 삼국의 학자와 지식인들이 모여 동아시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깊었지만, 무엇보다도 '활명연대'(活命連帶)라는 생명 살림의 가치를 꿈꾸는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소중한 다가왔다. 이러한 '지역 간·세대 간' 대화를 통한 연대야말로 나이라는 시간적 거리를 좁히고 국적이라는 공간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첫 걸음이 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지금은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잘 사는 참 생명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로의 회귀를 말할 때

세계가 자본주의 이념과 물질만능주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고 있을 때,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이 뭐냐? 단연코 생명주의에로의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속성상 사람과 자연의 생명을 파괴하는 세계의 흐름을 조정하는 것을 그만두고, 더불어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잘 사는 참 생명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로의 회귀를 말할 때이다.

### 지금은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잘 사는 참 생명주의, 인본주의, 민주주의로의 회귀를 말할 때

〈피의 원리〉는 바로 이러한 지구멸절의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고 나갈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관, 가치관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하여 인간 존재의 근원을 밝히고 깨달음으로써 그 근원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무서운 실천의 길을 추동하게 할 것이다.\*